Ewha Global Excellence Program

미술사학과×사학과 융합연구단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

: 미디어 전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미술사학과 학술연구사업 2차 보고서

워크숍: 동아시아 시각문화에 서술된 역사 읽기

강연: 이미지는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_전통회화의 비주얼 히스토리
(홍선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명예교수)

2026. 2. 19.

책임 교원: 김소연 교수

워크숍 보고서

워크숍 주제	동아시아 시각문화에 서술된 역사 읽기
지도 교수	김소연 교수
일정	2026.02.02.-02.19
장소	온라인 미팅
참여자	염하연(251HAG03), 우효정(9242HAG13), 정하은(252HAG23), 심정화(982HAG06), 김진경(252HAG04), 김가은(252HAG01), 박가현(222HAG26)
활동 내용	**1차 워크숍 (ZOOM, 2월 2일, 21:00 - 22:30)** 1) 팀원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행사를 준비하고 1차 워크숍을 위해 강연자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미술사 내 연구 스펙트럼이 넓은 강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동아시아 미술사 인식틀과 서술 체계의 방법론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조선시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근대 이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으로 나눠 다양한 시기와 주제를 다룬 논문을 고루 선정하고자 했다. 2)「조선 말기 평생도의 혼례 이미지」,「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콜로키움」,「15, 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 인식과 수용태도」,「해방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고려 후기 강남경 산수화의 대두와 이곽파 화풍의 전개」,「고려 초기 초상화제도의 수립」,「한국 개화기의 풍경화 유입」 등, 각기 다른 시기를 다룬 강연자의 논문을 발제하고 발표한 뒤 예상 질문을 정리해 공유하였다. **2차 워크숍_사후 스터디 (ZOOM, 2월 13일, 22:00 - 24:00)** 1) 사후 스터디에서는 강연자가 강연에서 다룬 시대와 동•서양을 아우르는 미술사 방법론의 필요성, 시대의 변천과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주요 작품들을 복기해보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문들을 함께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 강연자는 사례 분석을 통해 이미지가 단순 재현을 넘어 역사적 증언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짚었다. 이와 관련하여「조선시대 감로회도의 연희 이미지」,「조선 초기의 회화 애호 풍조」,「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한국미술사' 인식틀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미술사학의 과제」,「조각가 김종영의 그림들 동서고금을 종횡한 삶과 예술의 통섭적 아포리즘」,「개인소장의 〈出山虎鵲圖〉 :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萬曆壬辰年(1592) 製作의 <虎鵲圖> - 한국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 -」 등을 발제하고 질문, 의견을 공유하며 사후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참고 문헌	홍선표,「한국미술사 인식틀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미술사논단 제

	10 집, 한국미술연구소, 2000, pp. 291-304. → 식민 시기에 형성된 한국 미술사 연구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탈근대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론의 필요성을 논한다. 동아시아 미술문화 패러다임의 전체상을 밝히기 위한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인 재구축을 제안하였다. 즉, 자국의 개별성은 미술문화 전체를 보는 구성요소로서 나라 간 비교사적 방법에 의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보편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미술사'를 동아시아 미술로서 공시적으로 인식하고 '한국미술사'로서 통시적 체계를 구성함으로써 한국미술사의 근대 전후 시기를 연속성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홍선표,「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 인식과 수용태도」, 美術史論壇 제26집, 한국미술연구소, 2008, pp. 49-73. →〈몽유도원도〉와 16세기 조선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 화단이 송·원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명대 절파 화풍을 적극 수용해 간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안견의 작품에 나타난 중국 화법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중종대 친명 정책과 당물 유행이 화단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조선 회화가 외래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독자적 양식을 형성해 간 과정을 밝힌다.
자체 평가	김소연 교수의 지도하에 워크숍은 총 2회 진행되었으며 7명의 팀원이 참가했다. 1차 워크숍에서 강연자의 폭넓은 연구 주제를 최대한 일별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시대와 주제를 다룬 논문들을 고루 선정하여 발제와 발표를 진행하였다. 강연자의 저서『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한국근현대미술사론』에서 강연 주제와 연결할 수 있는 챕터를 함께 읽고, 미술사적 방법론 연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의 작품에 관한 논문들을 발제하고 발표하였다. 2차 워크숍(사후 워크숍)은 강연의 내용을 보충하고 논의를 확장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팀원들은 기존 강연에서 다룬 문제의식이나 작품 분석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시각을 서로 나누었다. 특히 미술사학의 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고 보다 통합적 시각에서의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강연자의 언급을 토대로, 각자 다른 전공을 가진 팀원들이 각자의 관심, 연구 분야를 공유하고자 했다. 동서양 파트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각 분야의 연구 쟁점을 나누고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팀 구성원 모두가 앞으로도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논문을 발제하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강연 전후로 스터디를 위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강연자의 연구물만을 발제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아쉽다. 향후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이어갈 스터디에서는 홍선표 교수뿐 아니라 현재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논문을 다양하게 선정하여 읽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부록1. 워크숍 증빙 자료

지도 교수	김소연 교수님
참여자	염하연(251HAG03), 우효정(9242HAG13), 정하은(252HAG23), 심정화(982HAG06), 김진경(252HAG04), 김가은(252HAG01), 박가현(222HAG26)

1) 발제문

사전 워크숍에서는 동아시아 미술사 내 연구 스펙트럼이 넓은 강연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기와 주제를 다룬 논문을 고루 선정한 후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사후 워크숍에서는 강연에서 언급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논문을 보강하여 읽었고, 미술사 방법론에 관한 논문도 발제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 사후 워크숍에서 공부한 강연자의 논문의 종류는 크게 **1) 한국·동아시아 미술사 인식틀과 서술체계의 방법론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2) 고려~조선시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3) 근대 이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1) 한국·동아시아 미술사 인식틀과 서술체계의 방법론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 - '동양미술론'과 '동양미술사'를 넘어서」는 홍선표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대 일본의 '동양미술론'과 '동양미술사' 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넘어서는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재구축 과제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공통의 연대기, 시대 구분, 장르 체계, 개념 틀 속에서 비교사적으로 서술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미술사' 인식틀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은 일제 식민기에 형성된 한국 미술사 연구의 한계를 비판하고, 탈근대·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한다. 특히 비교사적 관점에 기반한 '동아시아 미술사'의 통합적 재구축을 제안하며, 한국미술사를 동아시아 미술의 공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근대 전후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해방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광복 50년, 한국화의 이원구조와 갈등-」은 식민지 시기 형성된 전통 계승과 극복의 이원 구조가 광복 이후에도 지속되며 한국화 발전을 왜곡해 온 과정을 고찰한다. 특히 수묵화와 채색화, 전통과 현대화의 대립 구도가 한국화의 주체적 근대화를 지연시켰음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구 편향과 분파적 인식을 넘어 자기 전통에 기반한 창조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미술사학의 과제」는 분과화된 인문과학 체계 속에서 미술사학이 총체적 인간 이해를 위해 새로운 통섭적 지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함을 논의한다. 특히 연구 영역의 확장과 방법론의 다양화를 통해 정신·시각·물질문화를 아우르는 학문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하는 한국미술사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한다.

2) 고려~조선시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조선 초기의 회화 애호 풍조」는 조선 초기의 회화 애호 풍조가 고려의 서화 수장 전통을 계승하여 국가 통치의 시각 매체이자 사대부 수양의 문예 문화로 발전한 과정을 고찰한다. 특히 태조·태종·세종대의 정책적 장려와 안평대군을 중심으로 한 왕실 수장·후원 활동이 초기 예원의 형성과 회화 발전을 주도했음을 밝힌다. 나아가 안견의 <몽유도원도>를 통해 조선식 고전 산수화와 관각 문예의 성립을 규명한다.

「고려 후기 강남경 산수화의 대두와 이곽파 화풍의 전개」,「고려 중기의 북송과의 회화 교류」,「고려 초기 초상화제도의 수립」 세 논문을 대상으로 한 발제문에서는 고려시대 이미지를 텍스트의 공백을 보완하는 '시각 역사'의 자료로 파악하고, 그 기능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고찰한다. 고려 초기에는 어진과 진전 제도를 통해 권력 질서를 가시화하는 정치적 장치로, 중기에는 북송과의 교류를 입증하는 물질적 증거로, 후기에는 문인들의 심성을 드러내는 산수화의 형태로 작동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이미지 분석이 텍스트 중심 역사 서술을 보완하는 핵심 방법론임을 제시한다.

「조선말기 평생도의 혼례 이미지」에서는 조선 말기 평생도에 나타난 혼례 이미지를 통해 회화가 문헌 기록의 공백을 보완하는 시각 사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찰한다. 특히 <모당평생도> 등 회혼례 장면의 복식·의례·상차림 묘사를 분석하여 당시 혼례 풍속의 변화와 실제 관행을 추정할 수 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전통회화가 단순한 보조 자료를 넘어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구성하는 시각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은 계회도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통해 사대부 친목 모임의 제도화와 그 기념 방식이 어떻게 회화 형식으로 정착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고려 말 계회의 발생에서 조선 전기 왕실의 장려와 관료사회의 확산을 거쳐 16세기 계회도의 유형·구도·화풍이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며, 현존 작품들을 통해 회화가 당시 사회 구조와 문인 문화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료임을 밝힌다. 이를 통해 계회도가 단순한 기념 그림을 넘어 조선 전기 사대부 사회와 미술 양식 변화를 동시에 증언하는 시각 자료임을 제시한다.

「조선시대 감로회도의 연희 이미지」에서는 감로회도에 재현된 연희 이미지를 분석하여 조선시대 공연문화의 유형과 변천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근두상·솟대놀이·줄타기 등의 도상을 통해 연희가 관 주도 궁중 중심에서 민간 시장 중심의 상업적 공연문화로 이동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놀이와 연행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감로회도가 당시 사회상의 변화를 증언하는 중요한 시각 사료임을 제시한다.

「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 인식과 수용태도」에서는 〈몽유도원도〉와 16세기 조선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 화단이 송·원 화풍을 계승하면서도 명대 절파 화풍을

적극 수용해 간 양상을 고찰한다. 특히 안견의 작품에 나타난 중국 화법의 수용과 변용, 그리고 중종대 친명 정책과 당물 유행이 화단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조선 회화가 외래 화풍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독자적 양식을 형성해 간 과정을 밝힌다.
「萬曆 壬辰年(1592) 製作의 <虎鵲圖> - 한국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 -」,「개인 소장의 〈出山虎鵲圖〉 :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에서는 호작도가 중국 도상의 수용에서 출발해 조선의 영물 숭배와 결합하며 한국적 양식으로 정착한 과정을 고찰한다. 나아가 문인적 상징에서 민간의 벽사·기복 도상으로 변화한 흐름을 통해, 호작도가 시대의 불안과 염원을 반영한 시각 역사 자료임을 제시한다.

3) 근대 이후 작품을 대상으로 한 연구
「한국 개화기의 '풍경화' 유입」에서는 개화기 전후 한국에 풍경화가 유입되는 과정을 용어의 형성, 외국인 화가의 작품, 파노라마와 대중매체, 사진 이미지의 확산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풍경화가 전통 산수화 체계를 넘어 사생적 리얼리즘과 근대적 시각체제를 확산시키며 한국 미술의 근대화를 이끈 핵심 계기였음을 밝힌다.
「조각가 김종영의 그림들 - 동서고금을 종횡한 삶과 예술의 통섭적 아포리즘」은 조각가 김종영이 동양 문인화 전통과 서구 모더니즘을 융합하며 형성한 한국적 모더니즘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고찰한 논문이다. 자화상·가족상·풍경·자연물 그림을 통해 사생과 사의, 시서화 일치, 창생적 창작론을 실천한 그의 작업 태도를 분석하고 조각과 회화를 아우르는 김종영 통섭적 예술관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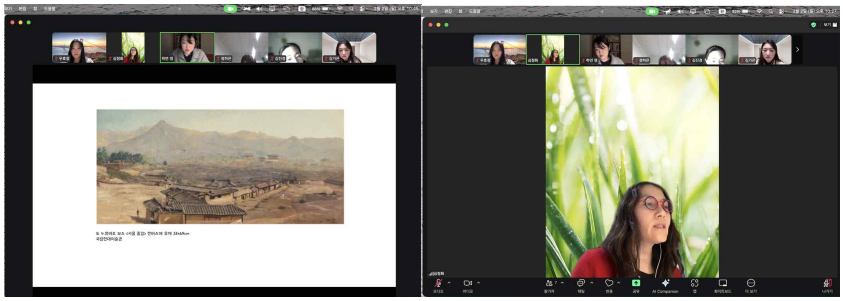
2) 참고 문헌
단행본
홍선표, 『동아시아 미술의 근대와 근대성』, 학고재, 2009.
홍선표, 『한국근현대미술사론』, 솔과학, 2022.

학술논문
홍선표, 「한국 전통회화의 국제성과 독창성 역사와 근현대의 수묵채색화」, 美術史論壇 제59호, 한국미술연구소, 2024.12, pp.79-113.
홍선표, 「조선 초기의 회화 애호 풍조」, 미술사논단 제54집, 한국미술연구소, 2022, pp.7-54.
홍선표, 「한국 개화기의 '풍경화' 유입」,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21, no.52, pp.101-131.
홍선표, 「고려 후기 강남경 산수화의 대두와 이곽파 화풍의 전개」, 미술사논단 제50호, 한국미술연구소, 2020, pp.253-271.

홍선표,「고려 중기의 북송과의 회화 교류」, 미술사논단 제49호, 한국미술연구소, 2019, pp.53-82.
홍선표,「조선말기 평생도의 혼례 이미지」, 미술사논단 제47집, 한국미술연구소, 2018, pp.161-184.
홍선표,「조각가 김종영의 그림들 동서고금을 종횡한 삶과 예술의 통섭적 아포리즘」, 미술사논단 특별호, 한국미술연구소, 2018.11, pp.255-266.
홍선표,「고려 초기 초상화제도의 수립」, 미술사논단 제45호, 한국미술연구소, 2017, pp.7-27.
홍선표,「조선 전기의 契會圖 유형과 해외소재 작품들」, 美術史論壇 제36집, 한국미술연구소, 2013, pp.7-31.
홍선표,「조선시대 감로회도의 연희 이미지」, 한국문화 제49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3, pp.73-97.
홍선표,「동아시아 통합 미술사의 구상과 과제 - '동양미술론'과 '동양미술사'를 넘어서」, 美術史論壇 제30집, 한국미술연구소, 2010.
홍선표,「새로운 방법의 모색, 한국미술사학의 과제」, 미술사학연구 vol.268, no.268, 한국미술사학회 2010, pp.37-54.pp.33-51.
홍선표,「15·16세기 조선화단의 중국화 인식과 수용태도」, 美術史論壇 제26집, 한국미술연구소, 2008, pp.49-73.
홍선표,「萬曆 壬辰年(1592) 製作의 <虎鵲圖> - 한국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 -」, 동악미술사학 제7호, 동악미술사학회, 2006.04, pp.239-243.
홍선표,「'한국미술사' 인식틀의 비판과 새로운 모색」, 美術史論壇 제10집, 한국미술연구소, 2000, pp.291-304.
홍선표,「개인소장의 〈出山虎鵲圖〉 :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 미술사논단 제9호, 한국미술연구소, 1999.11, pp.345-350.
홍선표,「해방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광복 50년, 한국화의 이원구조와 갈등 -」, 미술사연구 제9호, 미술사연구회, 1995, pp.315-322.

3) 워크숍 증빙 사진

온라인(2.2 월요일 오후 10시~11시 30분)



온라인(2.13 금요일 오후 10시~12시)



강연 보고서

초청 강사	홍선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명예교수		
강연 제목	이미지는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_전통회화의 비주얼 히스토리		
일시 및 장소	2026년 2월 5일 14시	장소	학관 108호
참석인원	60명 (본교생: 57명 / 외부인원: 3명) *청중 명부로 추산		
강연 내용	이 강의는 '이미지는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출발점으로, 회화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시각문화가 생산·유통·수용되는 사회적 조건과 권력 관계 속에서 역사적 증언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밝힌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강연자는 미술사 방법론의 변화를 짚었다. 과거 양식사 중심 연구가 이미지를 정지된 대상으로 보았던 것에 반해 오늘날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정치·사회·경제·종교·일상의 맥락 속에서 이미지가 갖는 의미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이미지는 삶의 총체적 조건 속에서 문헌과 교차 검증하며 해석되어야 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강연자는 문인화·풍속화·종교화 역시 사회 질서와 가치, 계층의 욕망을 조직하는 시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연자는 이와 더불어 근대 미술사의 서술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동서양과 전통·근대·현대를 아우르는 통합미술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이어 강연자는 각 시대의 대표작들을 사례로 들며 이미지가 역사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는 당대의 정치적 의도들이 축적된 사례이며, 이는 그림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감상 방식과 제도의 변화, 정치•사회적 변화 속에서 역사적 층위를 형성함을 보여주는 예라고 보았다. 덧붙여 <몽유도원도>의 배경을 이루는 산맥을 묘사하는 방식이 고려시대의 <수월관음도>의 배경인 동굴의 벽을 묘사한 방식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이상국가였던 조선이 전통적인 묘사 방식에서는 고려의 전통을 참조, 인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수락산 흥국사 감로회도>의 연희 이미지는 관 주도 문화에서 민간 상업 공연 문화로의 구조적 이동을 가장 집약적으로 담아낸 시각문화 자료로서, 조선 후기 공연 문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역사 자료라고 언급하였다. 까치호랑이 그림에		

	서는 문인적 상징에서 민간의 벽사·기복 도상으로 변화한 흐름을 짚으며, 호작도가 시대의 불안과 염원을 반영한 시각 역사 자료라고 보았다. 강연 말미에는 고려, 조선시대의 유명 작품뿐 아니라 『황성신문』에 실린 상점 광고삽화를 통해 근대 광고와 시각 매체가 시각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촉발한 양상 역시 다뤘다. 다양한 시대의 작품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층위를 다각도로 살펴본 후, 강연자는 각 시대를 증언하는 이미지 안에서 역사의 층위를 읽어냄으로써 당대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의 및 답변	**질의 응답** Q. 마지막에 제시하신 『황성신문』에 실린 상점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A. 이 삽화에서는 망원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에도시대 때 망원경이 들어왔고,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망원경이 들어왔다. 해당 삽화는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시각 도구를 광고 삽화라는 대중적인 시각 매체에 실어 보냄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대중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게 만든 구체적인 사례이다. Q. '이미지는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에서 '역사'는 무엇을 뜻하는가? A. 여기서의 '역사'는 사회·문화사적 사료로서 의미를 읽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양식사 연구가 이미지를 형식 분석에 머물게 했다면, 최근 접근은 문헌과 당대 맥락을 함께 해석해 이미지를 '말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초상화도 재현을 넘어서 창의성, 사회적 기능, 문화적 의미를 함께 분석할 때 비로소 역사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자체 평가	이번 특강은 "미술은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고려·조선시대의 대표적 작품들을 중심으로 미술 안에 서술된 역사와 미술사학의 방법론을 설명한 강의였다. 특히 일본을 통해 서술된 근대 미술사의 서술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동서양과 전통·근대·현대를 아우르는 통합미술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 메시지로 남았다. 이번 특강은 세심한 작품 분석, 미술사적 방법론에 대한 고찰뿐 아니라 AI 등 동시대적 문제의식 역시 견지해야 하는 연구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강의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명품 위주의 분석으로 진

	행되어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근대미술·여성미술 등 강연자가 확장해 온 연구 분야가 더 많이 다뤄지지 못한 점, 강연 전에 강연에 관한 참고문헌이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팀원들은 사후 스터디에서 강연에서 다룬 작품들과 강연자의 논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한 뒤 보다 다양한 논의와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부록2. 강연 증빙 자료

초청 강사	홍선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명예교수
강연 제목	이미지는 어떻게 역사가 되는가_전통회화의 비주얼 히스토리

1. 강연록 / 발표자료

-

2. 강연 증빙 사진 (특강 포스터 / 특강 현장)









3. 강연 참석자 명부

-